



오명불학원 전경. 중국 쓰촨성 서디에 위치한 오명불학원은 약 4만 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다.



산 위에서 본 오명불학원. 1980년 립메 폰촉이 처음 시작할 때는 32명의 제자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4만 명이 상주하며 불교를 배우고 있다.



오명불학원에는 수 만채의 붉은 토막집들이 있다. 학인 스님들은 이곳에 거처한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인 스님들. 거처에 돌아가서도 수행을 쉬지 않는다.

원력이 쌓아올린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③ 오명불학원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중국 쓰촨(四川)의 씨다(色達)는 3000m가 넘는 본격적인 고산지대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고산병 증세가 오는 지점이다.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곳이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움직여야 한다.

간즈장족자치주인 이곳에는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이 있다.

오명불학원은 세계 최대의 불교학원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약 4만 명의 학인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과 교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편의시설들도 존재한다.

곳곳에는 사찰과 교학 강당들이 있고 둘러싸인 산을 중심으로 학인 스님들 요사가 펼쳐진다. 성냥갑처럼 생긴 붉은 토막집들이 학인 스님들의 거처로 마치 한국의 1960~70년대 쪽방촌을 연상시킨다. 열악하다면 열악한 환경. 하지만 수만 명의 스님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력이 만들어낸 도시

오명불학원은 1980년 닝마파의 고승인 립메 폰촉(晋美彭措)이 세운 작은 사찰에서 시작했다. 이곳에서 립메 폰촉은 32명의 제자를 대상으로 수행과 설법, 교학을 공부했다. 립메 폰촉이 고산 오지에 사찰을 열고 수행을 한 것은 티베트 불교 전통성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립메 폰촉의 명망을 듣고 주위의 티베트인들 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1990년대에는 상주인구가 1만 명이 넘는 사실상의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립메 폰촉에게 정식 지위를 주고 오명불학원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립메 폰촉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1년에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사원과 도시를 파괴하고 학인 스님들을 쫓아냈다. 이는 주변 티베트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서양인들을 통해 이 소식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된다.

닝마파의 밀집지역인 캄 지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중국정부는 사원을 공개하지 않고 한족 수행자를 관할하는 별도의 스님을 두는 조건으로 오명불학원의 존속을 허락했다.

오명불학원의 수업은 티베트어와 중국어 두 가지로 진행된다. 입학할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과 불교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고 합격 후에는 4개월 간의 참관수업을 거친 뒤 자신이 공부할 과목과 스승을 정하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 내용은 문화(文化)-인명(因明)-계율(戒律)-구사(俱舍)-중관(中觀)-반야(般若)-전행(前行)-밀독(密讀)-구결(竅訣)의 9단계로 나뉘지며 입문하는 데 2년, 현교 수업에 4년, 밀교 수업에 3년 정도 걸린다. 오명불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요즘에는 오명불학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수업 코스도 있다.

오명불학원은 철저한 자급자족,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원칙 속에 살아간다. 학인 스님들의 생활비 및 학비는 자비로 부담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학인 스님들은 학내에서 이뤄지는 불



오명불학원을 창립한 립메 폰촉. 그의 원력은 세상에 없을 불교학원 도시를 만들었다.

1980년 립메 폰촉에 의해 창립 32명 시작해 현재 4만 명 수학 5명, 다섯 학문 공부를 의미해 교학부터 염불, 의학까지 다양 한명의 원력이 세상을 바꾸다

사와 윤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붉은 토막집도 입학할 때 구입하거나 임대해 해서 들어온다. 비용 절약을 위해 수행을 끝난 사람의 거처나 교재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느 곳에서도 결림이 없어라

오명불학원의 '명(明)'은 학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오명불학원은 다섯 가지 학문을 배우고 이를 통

달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는 '내명(內明)'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교학과 율장 등을 공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교명(工巧明)'이며, 손재주를 의미한다. 불상을 만들고, 불화를 그리고, 불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의방명(醫方明)'이다. 말그대로 의학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불교 의학'을 수학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인명(因明)'은 변론술을 배운다. 불교의 변론술은 오늘날의 논리학과 궤를 같이 한다. 불교 논리학은 무엇이 바른 불법인지를 확인하고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성명(聲明)'으로 불교 음성학으로 이해하면 된다. 언어의 운율, 어조, 염불 등을 배우게 된다.

이 같은 오명불학원의 다섯 가지 학문적 목표를 살펴보면 불교가 얼마나 광범위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티베트인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까지 오명불학원을 찾아 수학하는 것은 이 같은 종합적 학문체계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명불학원 주지 원조우 스님은 "오명불학원은 아난에서 달마로, 네팔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법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밀교와 선종의 수행방식대로 정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티베트 불교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중국 본토의 수행승이 이곳에 와서 수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순례단, 높은 구도심에 '감탄'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 지도법사 정우 스님(준공교구장)은 높은 구도열에 경의를 표했다. 정우 스님은 "이곳은 법화세계, 화장할혜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렇게 불가사의한 곳을 목도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에서 대해 말하고 있는데 평소 번역해 보는 것이 아닌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면서 "창립자인 립메 폰촉 립포체의 정신이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화현해 오명불학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문헌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오명불학원의 환경을 보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성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행복해 보였다"면서 "이들은 모두 오명불학원에 들어올 때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들어오고 공양 역시 스스로 윤력을 통해 마련한다. 그 원력과 간절함이 오명불학원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례에 동참한 세원사 주지 정은 스님은 "사실 고산병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오명불학원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수행과 교학 공부에 오롯이 매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감동했다. 세상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먹물옷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안사 주지 정안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불교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세상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새로운 원력과 발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중생무번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법무량수원학(法門無量誓願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법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하는 것이다. 오명불학원은 사홍서원의 원력이 어떻게 발원돼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며, 티베트 불교의 저력과 원동력을 알 수 있는 도량이다.

2016년 달력



12절(벽결이형) 달력
100부 @ 1,000 원
삼천부 이상 @ 800 원

영가옷 · 예수재용품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